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10. 10.(금)

산업부,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위한 공공기관 역할 당부

-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 소관 전체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금)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되었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하였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 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안·안전·위해 방지 관련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빈발하는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여 사이버 안전 강화를 당부했다.

셋째, 시설물 안전 점검, 중대재해 예방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대국민 투명성과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업무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였다.

산업부와 소속 공공기관들은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온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 보다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553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044-203-55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요**

□ 추진배경

○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 및 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5.10.10(금), 10:00 ~ 11:30, 무역보험공사 11층

○ 참석자 : 총30명

- (산업부) **장관**(주재), 기조실장, 산정실장, 기반실장, 무투실장, 자원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등
- (산업 : 9)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세라믹기술원, 탄소산업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제품안전관리원
- (무역 : 3)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안보관리원
- (자원 : 8) 가스공사, 석유공사, 강원랜드, 광해광업공단,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석탄공사

□ 세부일정

시간		세부일정	비고
10:00~10:03	(3′)	▸ **참석자 소개**	사회: 혁신행정담당관
10:03-10:08	(5′)	▸ **모두 발언**	장관
10:08~10:55	(7′)	▸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및 공공기관 협조사항**	정책기획관
	(40′)	▸ **기관별 안건 발표(기관별 2분내외)** - 안전, 보안, 위해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10:55~11:27	(30′)	▸ **자유토의**	공공기관
11:27~11:30	(3′)	▸ **마무리 발언**	장관